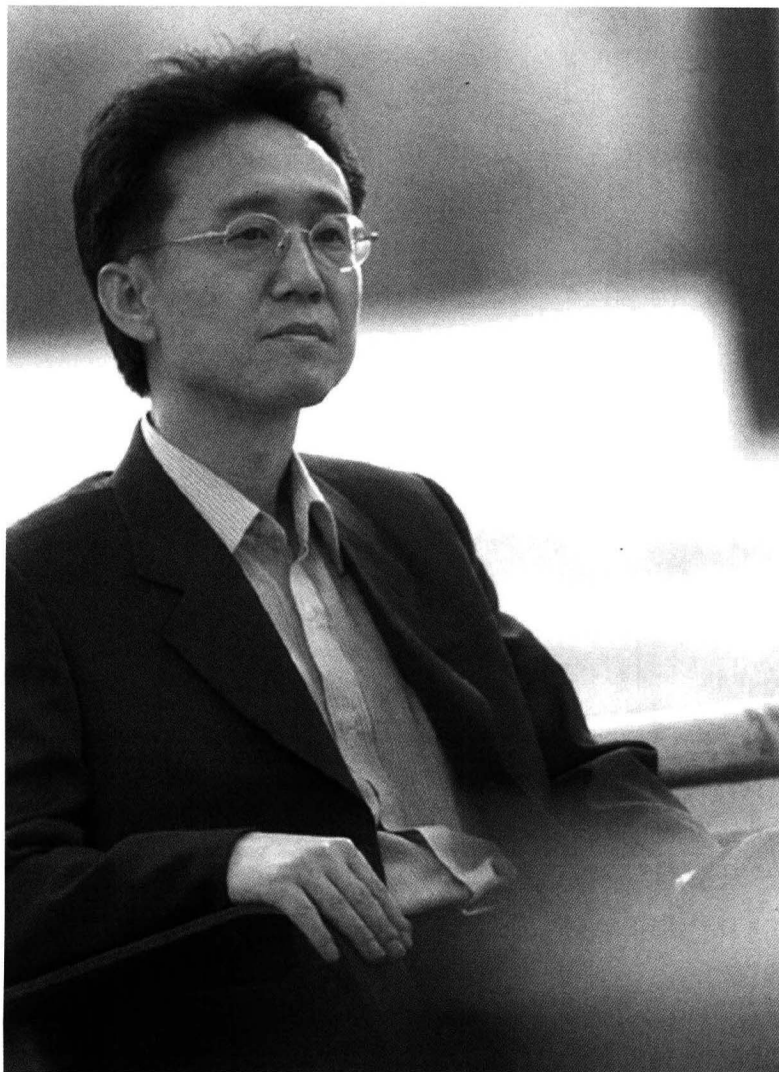


장편소설 《오랑캐꽃》 낸 소설가 양.현.석.

연좌제 멍에 지고 살아남은 남매, 그것은 13년 침묵했던 나의 초상



《오랑캐꽃》양현석 지음 | 실천문학사 | 366쪽 |
값 9,000원

“아침 햇살을 받은 여의도 63빌딩이 빛의 신전神殿처럼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맑은 날이 시간이면 늘 그렇듯이 강가에 우뚝 선 거대한 건축물은 빛을 반사하는 황금색 묘비처럼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중견작가 양현석(47) 씨의 장편소설 《오랑캐꽃》에서 윤지원이 강변북로 한남역 부근을 지나며 만나는 풍경이다. 강변북로 한남역 부근을 지나쳐 본 독자라면 그런 진경도 없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다. 과연 강변북로 한남역 부근에서 63빌딩을 볼 수 있을까? 와이드스크린을 보듯 유려한 풍경 속에 당신이 본 것은 서빙고동에 위치한 신동아아파트는 아니었는지. 다시 윤지원은 “이곳 언덕에서는 서울 어디서나 관측될 것 같은 63빌딩이 보이지 않는다. 과연 아침 햇살을 받은 여의도 63빌딩이 황금색으로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던가” 하며 먼저

의 사실을 배반하고 있다. 소설의 시작에서 윤지원이 보았던 63빌딩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생급스런 저자의 포석이란 생각은 곤란하다. 보이지 않는다는 그 배반은 사실이며, 소설가 양현석이 《아가베의 꽃》(고려원, 1990) 이후 13년 동안 소설쓰기에 침묵하고 있었던 까닭이 그것에 있다.

“사회주의자 아버지를 둔 탓에 연좌제에 묶여 음울하게 지내야 했던 주인공 윤기립과 윤지원 남매의 모습은 제 초상입니다. 《오랑캐꽃》은 자전소설인 셈이죠. 그러나 자전소설 역시 소설이므로 지나치게 사적인 기록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소설이다’는 자기통제 장치가 필요했는데, 윤지원이 본 63빌딩이 관념 속의 이미지였다고 정의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3년 동안 저 자신과의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전소설을 쓰며, 중도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픽션이다’고 끊임없이 환기시켜준 장치 덕이었습니다.”

《오랑캐꽃》은 작가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긴 소설이다. 그는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었던 아버지로 인해 연좌제라는 ‘주홍글씨’를 낙인받고 음지 식물로 몸을 낮춰 살아야 했던 과거를 갖고 있다. 그의 지난한 과거는 소설 속 윤기립과 윤지원 남매를 통해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주홍글씨를 낙인받고 살아야 했던 윤기립과

윤지원이지만 생을 버터내는 방법론은 극단이다. 소설가로 신문기자로 눈부신 비상을 거듭하는 윤지원이 세상과 맞선다면, 시골고등학교 시간강사로, 출판사와 잡지사를 전전하며 모든 일에 헛발질하는 윤기립은 제 한 몸 안주할 곳을 찾아 헤매면서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 그럼으로써 이 소설은 “뺨이 되어 버린 세계” 속에서 연좌제의 멍에를 지고 살아남아야 하는 남매의 처절한 성장기로 직립한다.

“분단과 이념을 다룬 많은 소설들이 앞서 쓰여졌지요. 그런 까닭에 낯설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분단과 이념을 바탕화면 정도로 슬쩍 내리고 남매의 격렬한 세상살이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새로움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답답해지기 쉬운 주제를 이런 스타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분단 차세대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소설의 구조를 이루는 정서는 가벼움과 경쾌함이다. 베트남 여인과의 불륜을 눈치 채 윤지원이 “베트남 여자는 느낌이 어때?”, “그런데 왜 돈으로 섹스를 사는 거야?” 하고 윤기립에게 던지는 질문, 경찰서에서 도망자 가족의 처지를 숨기기 위해 벌거숭이 몸으로 ‘산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며 ‘메아리’를 불러 탈 없이 제 옷을 돌려받는 윤기립의 어린 날 삽화는 가볍고도 경쾌한 ‘알레그레토’다. 그러나 소설의 끝에 이르면 구조를 이루는 정서는 사라지고 둘의 처연한 밀그림이 완연히 드러나는데, 《오랑캐꽃》 읽기의 즐거움은 책을 덮은 순간 새롭게 시작된다.

“진지한 척하지만 우스꽝스러운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허무를 느끼는 것도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몰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을 출간하고 나니 사람들이 ‘이거 재미있으면 안 되는 소설 아냐?’ 하고 난처한 얼굴로 묻곤 합니다. 제목부터 ‘오랑캐꽃’인데다 자전소설이라 밝히니 굉장한 이념소설을 예상한 거죠. 주먹 불끈 쥐고 목청 높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그리는 것만이 정수는 아닙니다. 형식실험도 그런 무게를 벗어버리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소설은 형식면에서도 독특함을 갖고 있다. 전체 3장으로 구성된 소설은 1장과 3장에서 윤기립과 윤지원의 교차진술로 각기 서술된다. 같은 배경을 두고 진행되는 교차서술은 서로의 기억을 수정하고 재배치하며 새로운 의미를 확장시킨다. 소설의 2장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각기 독립된 단편으로 보아도 좋을 만큼 각 단락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잡히지도 않는 세월이 경중경중 홀로 앞서가더군요. 형식도 그렇지만 내용도 몇 번이나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연좌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벽보 한 장 붙였다가 7년형을 사는 이상한 시절도 있었지만, 늘어나는 홈리스를 속수무책 보고 있어야만 했

던 IMF 관리체제 시절도 있었지요. 이념의 연좌제, 경제의 연좌제 등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연좌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단시간에 소설을 마쳤다면 이러한 깊이까지는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기자도 하나의 문장을 배반해야겠다. 그는 13년 동안 소설쓰기에 침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전기록을 위해 온몸의 기억을 살려 단 한 편의 소설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침묵은 제스처에 불과했고, 그러므로 그가 침묵했다는 저간의 기사들은 모두 거짓이다. 가볍고도 경쾌하게 말하자면 보기 좋게 속은 셈이다.

소설 속의 윤기립과 윤지원은 작가의 안과 밖이다. 두 인물의 교차진술 역시 완벽하게 자신의 과거를 복원하려는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테다. 과거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기억의 복원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 도굴되어 변형되는 개인사의 무덤인 법, 그는 과거의 편린 하나라도 제대로 건져 보려 두 인물을 등장시켜 두 목소리로 말하게 한 것이다.

“탈고하고 나서 한참 울적했습니다. 단 한 편의 소설을 쓴 13년의 시간을 생각하니 아득하기도 했지요. 제 얘기를 원 없이 써보았으니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이야기거리들을 꺼내봐야죠. 작품을 쓰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순전히 제 게으름 탓일 겁니다. 변명도 궁색해져버린 마당이니 열심히 쓸 수밖에요.”

소설의 마지막에 윤지원이 미국으로 떠나듯, 한 신문의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역시 며칠 뒤면 미국으로 떠난다. 자신과의 화해를 위한 걸음은 아니다. 화해는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단지 그곳에 그의 가족이, 그리고 많은 문장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까닭이다. 책을 통해 그의 전부를 보아버린 듯 해 더 궁금할 것 없는 인터뷰였지만, 기자는 내심 그가 강변북로 한남역 부근을 찾아가 보이지도 않는 63빌딩을 보고 돌아갈는지 그것만은 궁금했다. **한**

취재 박용두 기자

“잡히지도 않는 세월이 경중경중 홀로 앞서가더군요. 형식도 그렇지만 내용도 몇 번이나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연좌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